

## 번역과 담론: 번역의 사회문화적 역할을 중심으로\*

전 현 주  
(한북대)

### 1. 들어가는 말

대한출판문화협회의 2010년도 출판통계<sup>1)</sup>를 살펴보면 전체 도서의 발행종수(40,291종) 가운데 번역서가 차지하는 비중은 26.7%(10,771종)로 전년도 27.6%(11,681종)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해외 도서의 저작권 수입에 의한 국내 출판도서의 번역서 구성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번역서의 비중은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15%대에 머물렀으나, 번역출판 점유율이 점차 높아지면서 2000년대 이후로는 30%에 육박할 만큼 대폭 증가하였다. 분야별 현황을 살펴보면 문학(21.6%), 만화(20.9%), 아동(19.8%), 사회과학(11.8%), 종교(6.3%) 등이 각각 비중을 차지한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대중 담론으로 자리 잡은 ‘정의’(正義)와 관련지어 보면 통계치에서 차지하는

\* 본 논문은 2012학년도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연구임.

1) [http://www.kpa21.or.kr/bbs/board.php?bo\\_table=d\\_total&wr\\_id=108](http://www.kpa21.or.kr/bbs/board.php?bo_table=d_total&wr_id=108)

비중이 일견 무색해질 수 있을 정도로 일대의 파장을 몰고 온 번역서가 있다. 이 번역서는 기존의 번역서와는 성격이 다른 위상을 갖고서 목표문화권 독자들에게 접근하였다. 번역서는 의례히 번역의 품질에 관한 독자들의 예리한 분석력을 비켜갈 수 없는데 반해 이 작품은 이러한 통과의례를 거의 거치지 않고 출간과 동시에 목표문화권에서 중요한 담론(discourse)<sup>2)</sup>을 형성하기 시작하여 지금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담론을 생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정의란 무엇인가?』(Justice: What's the Right Thing to Do?)<sup>3)</sup>는 원작이 엄연히 존재하는 번역서가 분명한데 독자들이 해당 작품을 일종의 원작처럼 수용하는 태도를 시종일관 고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체로 우리나라 독자들은 창작도서와 달리 번역서의 번역품질에 대한 가감 없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행동양상을 보이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이 작품은 각종 인터넷 서점의 독자서평이나 포털사이트의 블로그 등을 검색해보면 번역의 품질에 대한 의견이나 평가의 글을 좀처럼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특징을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번역서이기 때문이라 판단한다면 뭔가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는 일반화의 오류를 피할 수 없는 듯하다. 왜냐하면 “번역행위는 항상 언어 이외의 문화체계 및 정치체계, 그리고 역사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번역은 너무도 오랫동안 단순히 미학적인 행위로 간주된 채 사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간과 (Susan Bassnett & Harish Trivedi 1999: 15)되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자는 해당 작품에 대한 독자들의 특이한 태도와 거대한 담론이 무서운 속도로 생성되어 가는 과정을 추적하면 일관되게 작용하는 특정한 양상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 상정한다. 이는 “수적인 우세와 실시간 반응 등으로 무장하여 엄청난 호소력과 대중성을 지닌 막강한 여론을 주도하는 집단으로 성장한 독자 (전현주 2008: 55)의 반응을 통하여 거대담론의 시발점을 추적하면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 가정하기 때문이다.

2) 본고에서 ‘담론’이란 다른 사람이나 세계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를 지닌 이야기, 특히 체계적인 성격을 갖추고 권력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 이야기를 말한다.(강내희 1990: 116-7)

3) 마이클 샌델 저 이창신 역 (2010) 『정의란 무엇인가?』(Justice: What's the Right Thing to Do?) 과주: 김영사.

## 1.1 연구방식 및 목적

담론과 관련하여 언어학적 측면에서 번역현상에 접근하여 담화분석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방식은 본고의 연구대상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언급은 일단 배제하기로 한다. 다만 번역학 분야에서 키워드 ‘담론’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 결과를 간단히 살펴본 후 본고의 연구방식 및 목적에 관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그동안 한국번역학회에서 발간하는 『번역학연구』에 소개된 담론 관련 논문은 3편으로, 이항은 「번역품질평가의 현황과 과제」에서 기존의 번역품질 평가 담론의 문제점 혹은 간과된 요소를 중심으로(2010: 116-121), 그리고 「번역학과 메타담론」에서 번역의 역사, 번역방법론, 메타이론 등의 연구영역을 중심으로 번역학이라는 학문의 본질에 대한 메타담론의 필요성을 논의한 바 있다(2011: 194). 그리고 류현주는 「디지털 서사 담론 번역의 용어 문제」에서 IT분야에서 양산되는 번역의 용어의 통일성에 관하여 논의한 바 있다(2006: 69-89). 번역의 품질평가 및 용어 통일과 관련된 논문은 기술적인(descriptive) 측면에서, 번역학과 메타담론은 번역학 전반에서 논의되는 규범적인(prescriptive) 측면에서 담론에 관하여 논의를 한 반면, 본고에서는 번역 작품이 목표문화권에서 담론을 양산하는 현상을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 방식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이는 본고의 분석대상도서인 2010년 5월부터 2011년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독서시장을 강타하고 있는 마이클 샌델(Michael Sandel)의 『정의란 무엇인가?』(Justice: What's the Right Thing to Do?) (이창신 역/김영사)와 관련된다. 다시 말해서, 본고에서 정의하는 담론이란 『정의란 무엇인가?』가 “한국사회에서 탈맥락화(decontextualized) 된 상품으로 소비 (이택광 2011:15-34)되고 있는 신드롬을 어떻게 볼 것인가와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해당도서는 원천문화권인 미국에서는 지극히 정치적인 입장을 대변하는 내용으로 수용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비정치적인 내용으로 수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맥락이나 내용에 상관없이 한국사회에 만연한 정치 일반에 대한 혐오를 치유하기 위한 특효약으로 호출 (이택광 2011:15-34)되어 작품의 출간과 동시에 ‘정의 담론’이라는 거대한 공공의 담론을 형성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자발적이며 동시에 담론의 재생에 참여하는 독자들의 행위는 보

이지 않는 힘으로 작용하여 사회의 의식을 전환시키고 변화를 모색하는 일종의 권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거의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독자들의 반응과 범(凡)대중적인 담론을 형성토록 한 원인은 무엇일까? 이는 원천 문화권에서 생산된 텍스트 자체의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하여 무의식적으로 형성된 담론인가? 아니면 이미 잠재되어 있던 한국사회의 정의에 대한 갈증에 인화성 강한 동인(動因)으로 작용하여 거대한 담론이 들불같이 형성된 것일까? 다시 말해서 한국사회 내부에서 동기화된 자발적인 담론인가? 아니면 텍스트 자체와 관련된 감춰진 권력의 속성에서 비롯된 비자발적인 담론인가?를 점검해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담론이란 사회 구성원들의 생각과 행동을 고스란히 반영하는 일종의 문화필터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번역서가 목표문화권에서 중요한 담론을 형성하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전현주 2004)을 번역의 사회문화적인 역할의 관점에서 조망하고자 한다.

## 2. 번역과 담론

번역과 담론의 불가분의 양상을 점검하기 위하여 분석대상텍스트에 대한 목표문화권의 반응을 점검한 후, 독자 및 저자 위주로 담론의 양상을 유형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 2.1. 번역과 담론

『정의란 무엇인가?』는 이미 지식의 복합체로서 담론이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되는 일종의 권력으로 성장하였으므로 단순히 한 권의 밀리언셀러가 한국사회에서 소비되는 현상에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미셸 푸코(Michael Foucault) 역시 『담론의 질서』에서 “어떤 사회에서든 담론의 생산을 통제하고 선별하고 조직화하고 나아가 재분배하는 일련의 과정들-담론의 힘들과 위험들을 추방하고, 담론의 우연한 사건을 지배하고, 담론의 무거운, 위험한 물질성을 피해가는 역할들-이 존재한다(1998: 10)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필자는 특히 푸코의 “담론들 사이에는 매우 규칙적인 일종의 차등화가

존재한다 (Foucault 1998: 18)는 견해에 적극적으로 동의한다. 특히 담론의 생산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 특히 번역서의 경우는 원천텍스트 문화와 목표텍스트 문화 사이의 물리적인 공간의 차이와 구성원들의 사고방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담론들 사이의 규칙적인 차등화는 확연히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현상은 먼저 해당 담론의 모태가 되는 『정의란 무엇인가?』의 원천텍스트를 생산 주체와 목표텍스트를 생산한 주체들에 관하여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정의란 무엇인가?』의 원천텍스트를 생산한 주체는 무엇보다도 저자인 마이클 샌델 교수, 하버드대 학생(청중), 그리고 출판사를, 목표문화권에서는 역자, 감수자, 그리고 출판사를 꼽을 수 있다. 마이클 샌델 교수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했던 내용, 즉 “매년 천여 명의 하버드대 학생들이 연속 수강하는 자유시장주의에서 공리주의,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존 롤스까지 실제 수업을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이 빠져드는 도덕적인 딜레마에서 무엇이 옳은 일인가를 가장 흥미롭고 도발적으로 풀어낸 강의 를 토대로 미국의 출판사 Farrar Straus Giroux에서 2010년에 출간한 *Justice with Michael Sandel*를 우리나라의 대형출판사(초판: 이목 역/김선욱 감수, 재판: 이창신 역)에서 같은 해 5월에 출간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하버드대학교수의 전설의 명강의’라는 수식어가 무색할 정도로 도서 판매량은 10만부에도 미치지 못한 반면에 목표문화권 중 우리나라에서는 출간 후 1년여 만에 밀리언셀러의 반열에 오르는 쾌거를 이룬 데는 단순한 우연이 작용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sup>4)</sup>. 이는 바로 원천문화

4)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는 하버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설했던 강의 내용을 토대로 2009년 12월에 미국에서 처음 출간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 5월에 번역 출간된 이후 6개월이 채 안 되어 60만부가 출고되었다고 한다. 한국출판인회의에서 집계한 종합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이후 18주나 인문계 베스트셀러 1위를 지켰다. 그리고 철학서적이 종합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서, 2000년 1월 김용옥 교수의 『노자와 21세기』 이후 10년만의 일이라 한다. 2011년 1월 한 달 동안 EBS에서 신년특집으로 방영하여 시청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으며 이를 계기로 보다 많은 독자들을 확보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2010년 8월 20일 경희대 강당에서 열린 초청강연회에서 4,500여명이나 되는 청중이 참석했을 때 샌델 교수마저도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고 한다. 2011년 10월 12일에도 매경 세계지식포럼의 강연차 한국을 방문하여 ‘무상급식’과 ‘시장지상주의와 사회정의 충돌 문제’ 등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도 하였다.

권과 다른 목표문화권 독자들의 심리와 독서성향 그리고 시대적인 요청 등을 예리한 관찰력으로 승화시켜 탁월한 마케팅 전략을 접목시킨 시도가 주효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저자와 번역서를 출판한 출판사의 변을 통해서 두 문화권 독자들에게 접근하는 입장의 차이를 확인 할 수 있다. 가령, 저자 자신이 ‘국내(한국)의 인기 비결’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이 책은 학자뿐만 아니라 철학전문가 일반 독자들에게 읽히길 바랬다 며 “철학의 큰 개념들인 정의, 개인의 권리, 공동선(善)의 의미들을 일반인들에게 다가가게 한 것 5)이라고 대답 하였다. 반면에 번역서를 출간한 출판사의 대표는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갈망이 폭넓게 퍼져, 뜨거운 호응을 얻은 것 같다 6)고 견해를 밝혔다. 곧 저자는 원본적인 의미에서 독자에게 접근을 지향한 반면 목표문화권 출판사에서는 독자의 욕구를 반영하는 사회의 현실적인 요구에 부응하는 전략이 주효하였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다음으로 원천텍스트와 목표텍스트의 내용을 통하여 담론을 무한하게 생성하는 독자들이 있다. 원천문화권에서는 2012년 1월 25일 현재 인터넷서점 아마존의 판매순위가 전체도서 중 570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 61개의 독자서평이 올라와 있는 정도이다. 이에 반하여 목표문화권 독자들은 출간 이후 인문서로는 이례적으로 폭넓은 관심을 보였으며 각종 인터넷서점의 도서순위에 연일 베스트셀러의 상위 자리에 올리더니 급기야 출간 후 11개월만인 2011년 4월 18일에 밀리언셀러로 등극시킨 장본인들이다. 출간 초기에는 남성 독자들의 비중이 높았으나 다른 인문서적과 달리 여성독자의 비중이 높은 특징도 나타났다.7) 시나 소설 혹은 실용서가 아닌 인문교양 분야의 단행본이 밀리언셀러가 된 것은 2000년대 들어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다. 『반갑다 논리야』(사계절 1992년), 『나의 문화유산답사기』(창비 1993년), 『한 권으로 읽는 조선왕조실록』(들녘 1996년) 등이 잇달아 100만부를 돌파한 90년대와 달리, 최근 수년간은 인문학

5) 경제투데이 이광진 기자 2010-08-20일 「[영상]마이클 셸넬교수, “경희대서 4000여명과 대화 방식으로 강의 진행」.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57&fid=587&articleid=20100820001304308a3>

6)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4/19/2011041900043.htm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4/19/2011041900043.html)

7) 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2011-04-18 「‘정의란 무엇인가’ 100만부 돌파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1/04/18/0200000000AKR20110418193400005.HTML?did=1179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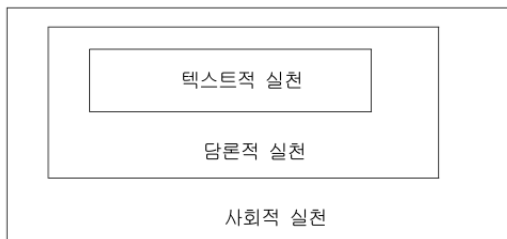
독자가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에 비추어보면 매우 특별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게다가 이 책은 영미권 출판시장을 통틀어 판매량이 10만부 이하에 불과하였으나, 유독 일본(60만부 돌파)과 한국에서는 큰 돌풍을 일으켰다는 점도 이채롭다.<sup>8)</sup>

1990년대의 세 권의 밀리언셀러들은 모두 창작 작품인데 비하여 『정의란 무엇인가?』는 번역서임에 비추어 보면 원천문화권에서 그다지 주목받지 못한 작품이 목표문화권 특히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대단한 주목을 받는 현상에는 뭔가 특별한 요인이 잠재되어 있는 것 같다. 이와 관련하여 위에서 언급한 출판사의 입장처럼 양극화로 인한 정의의 사회의 갈망에서 비롯된 현상인지 아니면 저자의 화려한 이력을 배경으로 한 후광효과인지, 혹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식어버릴 일시적인 신드롬인지 살펴보기 위하여 한국사회에서 생성된 담론의 양상을 살펴보려고 한다.

## 2.2 담론의 양상

담론의 양상을 분류하기 위하여 사회적인 측면을 포함하여 담론의 분석을 시도했던 노만 페어클로프(Norman Fairclough)의 비판적 담론 분석 모델(Critical Discourse Analysis: CDA)을 매우 제한적으로 참고하였다. 담론의 동적 과정을 중심으로 사회적 실천, 담론적 실천, 텍스트적 실천 등으로 분류한 CDA의 패러다임(2004: 86)은 다음과 같다.

<표 1> 비판적 담론분석 이론의 구조



8)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4/19/2011041900043.htm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4/19/2011041900043.html)

각각의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사회적 실천(social practice) 차원의 분석은 담론 발생의 정치사회적 맥락을 밝히는 것이다. 담론은 사회의 여러 조건들 즉 담론이 발생하는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가치 이념 등의 문제와 관련된 문화적 조건 등을 포함한다(2004: 89-90). 다음으로 담론적 실천(discourse practice) 차원의 분석은 텍스트의 상호작용적 측면 즉 개별텍스트나 담론이 생산 유통 소비되는 과정에서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석하는데 초점이 있다(2004: 101-2). 마지막으로 텍스트적 실천(textual practice) 차원의 분석은 어떤 사건, 상황, 관계, 사람 등을 어떻게 표현(representation)하는가에 초점을 맞춘다(2004: 157).

페어클로프의 CDA 이론은 한마디로 담론을 둘러싼 사회적인 현상을 텍스트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적인 현상까지 포괄하여 분석하는 패러다임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언어학적인 미시적인 담론분석에 푸코의 거시적 담론 분석을 결합하여 정치적, 사회적 맥락 속에서 담론의 생산과 실천행위까지 파악하려고 시도(2004: xi)한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연구이다. 하지만 번역의 사회문화적 역할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는 본고의 목적 및 독자의 반응과 사회의 현상을 중심으로 거대 담론의 생성 원인을 추적하는 연구방식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담론의 양상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독자들의 양상과 매칭을 시도 하였음을 미리 밝혀둔다.

한편, 본고의 분석도서와 관련하여 저자와 역자를 제외하고 담론의 직접적인 생산자인 일반독자들은 해당 작품을 통하여 작품 자체에 대한 전적인 공감과 자신의 판단력을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점에서 담론의 형성에 가장 크게 기여한 집단이다. 이들은 온라인 서점이나 카페, 블로그, 트위터, 유튜브 등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망을 적극 활용하여 서평이나 공감 내용을 표명하여 해당 서적을 밀리언셀러의 반열에 오르도록 작용한 동시에 한국사회에서 ‘정의 담론’이라는 거대한 담론을 형성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였다. 독자들의 반응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었다. 다만 유형별 양상의 명칭은 개별 특성을 포괄할 수 있는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 필자가 명명하였음을 밝혀둔다.

### 2.2.1 텍스트적 실천(textual practice)

#### ① 지식갈증 해소형

지식갈증 해소형은 주로 텍스트를 통하여 지식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유용한 정보를 획득하였을 때 만족감을 얻는 유형을 일컫는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독자들의 독서성향의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잠재력도 지니고 있다. 가령,

사례 1)

“고등학교 시절 암기용으로 외웠던 철학사상가들의 이론을 사례를 풀어가  
는 명쾌한 문답식 강의를 통해 다양한 지식을 늘릴 수 있었다.”<sup>9)</sup>

사례 2)

“충북대 학생들의 도서대출 순위를 보면 『목향』, 『해리포터』, 『비뢰도』, 『기즈나이트』, 『신』 등이 상위권을 차지하며, 지난해 충북대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읽은 책은 다름 아닌 『식객』이었다. 하지만 “요즘 마이클 샌델 교수의 하버드 특강 ‘정의’가 EBS를 통해 전파를 타면서 인문학의 인기가 높다. 물론 존로크와 자유지상주의, 합의를 조건, 임마누엘 칸트의 도덕론 등 주제가 어렵긴 하지만 이 강의의 매력은 학생들의 살아있는 눈빛을 볼 수 있다는 점”<sup>10)</sup>에서 판타지 소설에 빠진 대학 캠퍼스를 구할 수 있을 것 같다.

페이클로프가 분류한 CDA의 1차적 속성인 텍스트적 속성은 일차적으로 텍스트의 내용 및 형식과 관련된다. 해당 도서를 통하여 읽은 독자들이 다양한 지식을 늘릴 수 있거나 어려운 주제이지만 제대로 독서를 해야겠다는 각오 등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SNS에 올리거나 기사로 활자화되면 담론의 형성에 일정부분 기여하게 된다.

9) 블로그: 책읽어주는 여자 <http://blog.daum.net/windyzz/6666605>

10) 충청타임즈 김금란 기자 2011-01-24일 판타지 소설에 빠진 대학 캠퍼스  
<http://www.cc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229755>

## ② 자의식 환기형

다음으로 ‘자의식 환기형’은 텍스트의 내용에 보다 적극적으로 공감하여 자신이나 주변의 상황과 연관시켜 사고력을 단련시키거나 자신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는 독서효과를 얻는 유형이다. 가령,

사례 3)

“‘만약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문답식 강의의 내용을 읽다보니 ‘과연 나라면 어떻게 했었을까?’ 고민하게 되었다. 사회 속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딜레마의 사례를 통해 공리주의의 문제점을 토론을 통해 깨닫게 한다. 11)

사례 4)

“…… 비록 해답이 없을지라도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의견을 접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올바른 존중이라 말하는 샌텔 교수의 의견은 정답만을 바라고 책을 읽던 나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그가 말하는 존중의 방법은 개인의 취향이라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의견을 흘려듣고 현실을 회피하던 나 자신에게 일침어린 지적처럼 느껴졌다 12)

자의식 환기형 역시 페어클로프의 CDA 중 텍스트적 실천에 속하는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왜냐하면 독자들이 텍스트를 읽으면서 느꼈던 생각과 자신의 입장에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등에 관한 공감의 확산을 통하여 마찬가지로 ‘정의’의 담론이 형성되는데 동참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 2.2.2 담론적 실천(discourse practice)

## ① 사회변화 시도형

텍스트를 통하여 접하는 내용에 ‘자의식 환기형’에 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공감하여 단순히 문자텍스트로 그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속한 사회의 문제점을 변화시킬 필요성을 절감하는 유형이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행동으로 실천하는 면모를 지니기도 한다.

11) 블로그: 愚公移山 2011/07/01 <http://dreamtheater.tistory.com/996>

12) 블로그: 책읽어주는 여자 <http://blog.daum.net/windyzz/6666605>

## 사례 5)

“매일같이 보도되는 편법 상속, 뇌물 수수, 특혜 비리 사건 등은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한다. 지난해 마이클 샌델의 책 ‘정의란 무엇인가’의 선풍적인 인기는 정의의 정의(定意)에 목마른 사회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대한민국의 정의를 묻다’ 1부에서 “해군 소령 김모씨가 군납 비리를 폭로한 후 군 내부에서는 ‘조직의 배신자’라는 냉대와 압박을 해왔고, 어쩔 수 없이 군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 양심적인 소시민이 되기 위한 선택한 그를 가족과 사회는 ‘패배자’로 바라봤다. 제작진은 조직에 대한 충성과 정의 사이에서 고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다.”<sup>13)</sup>

## 사례 6)

“e-HR 전문기업 화이트정보통신(대표 김진유 www.win.co.kr)은 인재육성과 사회공헌을 위한 3번째 채용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매해 채용펀드를 통해 입사지원자 1인당 출자된 기금으로 국내 실업자 및 실업가정을 돕고 장학 사업과 해외연수 등 인재 육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진유 화이트정보통신 대표는 “마이클샌델 교수의 정의라는 강의는 외모보다 재능으로 평가 받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화제가 된 것은 공정한 평가와 대가를 받고 싶은 갈망이 공론화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기업의 마음과 훌륭한 인재의 자질에 대해 되새기는 지원자의 마음이 닿는다면 세계를 선도할 HR 솔루션의 미래는 밝다.”<sup>14)</sup>

앞의 텍스트적 실천에 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담론의 생산에 참여하는 유형으로 사회변화를 시도하여 담론적 실천을 행한다. 정의롭지 못한 사회의 일면을 보고서 묵인하거나 못 본척하는 방관자적인 태도를 벗어나서 직접 양심을 선언하거나 정의를 실천하는 채용이벤트를 실행에 옮겨 변화에 동참하는 등 텍스트적 실천을 담론적 실천으로 승화시키는 양상에 속한다.

13)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8/19/2011081900944.htm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8/19/2011081900944.html)

14) 데이터넷 김선애기자 2011-06-30 「화이트정보, 채용펀드로 사회공헌」  
<http://www.data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836>

### 2.2.3 사회적 실천(social practice)

#### ① 지식 확장형

‘지식 확장형’은 보다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 실천’ 유형으로, 적극적으로 담론의 생성에 기여하며 텍스트적 실천이나 담론적 실천에 비하여 대중적인 담론의 확산을 담당하는 침병의 역할을 수행하는 유형이기도 하다. 이는 『정의란 무엇인가?』가 출간된 이후에 우리나라 출판시장 역시 ‘정의 담론’으로 출렁거리기 시작하여 ‘정의’를 표방하는 다양한 도서가 출간되는 붐을 이루는 상황과 관련지을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에 출간된 서적 중에서 이 시대를 풍미하는 개념과 사고방식을 예리하게 포착하여 시대의 상징어로 부각시킨 『용기』, 『용서』, 『화』, 『배려』, 『경청』, 『겸손』, 『정진』, 그리고 『도덕』 등의 경우와는 성격이 다르다. 이 짧고 간결한 2음절의 서명(書名)은 곧 이 시대의 화두가 되어 독자들의 독서 취향을 선도하였으며 독자들의 열렬한 반응에 힘입어 곧 해당 도서의 서명을 활용한 비슷한 제목의 서적이 연이어 출간된 측면에서 보면 물론 『정의는 무엇인가?』와 공통점도 지니고 있으나 대체로 텍스트 외적인 거대한 담론을 형성하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이에 반하여 『정의란 무엇인가?』는 매우 짧은 기간 동안에 저자는 물론 텍스트 자체에 무조건적이며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며 자발적이며 무의식적으로 독자들이 브리콜라주(bricolage)<sup>15)</sup>적인 지식을 생산하는 능력을 통하여 담론을 양산해내는 유례없는 경우로 보인다. ‘정의’를 표방하는 출간도서의 목록을 창작품과 번역서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정의’를 표방하는 출간도서의 목록

구분	서명	저자	역자	출간연도
창작	청소년을 위한 정의론	강영계		2011

15) ‘bricolage(브리콜라주)’는 원래 프랑스어로 ‘여러 가지 일에 손대기’ 또는 ‘수리’라는 사전적 의미를 지닌 말이다. 손재주라고도 한다. 이 단어는 프랑스의 인류학자 클로드 레비스트로스(Claude Lévi-Strauss)가 그의 저서 『야생의 사고』에서 사용함으로써, 신화(神話)와 의식(儀式)으로 대표되는 부족사회의 지적 활동이 어떤 종류의 것인가를 나타내는 말이 되었다. 네이버(Naver) 백과사전 참조.

도서	무엇이 정의인가-한국사회 정의란 무엇인가에 답하다	이택광 외		2011
	자유와 정의	박근		2011
	정의와 헌법: 쉽게 쓴 정의 이야기	문홍수		2011
	정의로의 산책: 정의론	한희원		2011
	경제정의와 균형 자본주의	김성배		2011
	정의를 넘어서: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기독교적 답변	탁영철		2011
	정의로운 국가란 무엇인가	권기현		2011
	청소년을 위한 정의의 올바른 이해	유재화		2011
	소태수 선생님 정의가 뭐예요	문성모		2011
	확신의 함정 : 금태섭 변호사의 딜레마에 빠진 법과 정의 이야기	금태섭		2011
	영원한 라이벌 김대중 VS 김영삼 : 정의를 위한 처절한 2인의 전쟁 국민 90%가 모르는 이야기	이동형		2011
	굿바이 삼성 : 이견희, 그리고 죽은 정의의 사회와 작별하기	김상봉 외		2010/10
	대한민국에 정의를 묻다 : 강원랜드를 말한다	정덕		2011
평등 자유 권리 : 사회 정의의 기초를 묻다	이종은		2011	
역서	정의의 역사 (A Brief History of Justice)	David Johnston	정명진	2011
	정의의 힘으로 세상을 지킨 위인들	요나 윈터	황영빈	2011
	D. A 카슨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의	D.A 카슨	송영의	2011
	지구화 시대의 정의 (Scales of Justice)	낸시 프레이저	김원식	2010/2011
	정의를 위한 용기(Just Courage)	Gary A. Haugen	이지혜	2011
	내 아이에게 가르쳐주는 첫 정의 수업	Rushworth M. Kidder	김이영	2011
	마이클 샌델의 정의사회의 조건	고바야시 마사야	홍성민 외	2011
	회복적 정의란 무엇인가? :	하워드	손진	2010/2011

범죄와 정의에 대한 새로운 접근	제어		2
법정에 선 과학 : 생생한 판례들로 본 살아있는 정의와 진리의 모험	실라 재서너프	박상준	2011
학교현장을 위한 회복적 학생생활지도 : 어떻게 학생들에게 책임감과 상호 존중을 가르칠 수 있을까? -KAP 정의와 평화 실천 시리즈 1	로레인 수투츠만 암스투츠 외	이재영 외	2011
그녀의 정의	Gloria Whelan	범경아	2011
정의와 미소	디자인 오사무	양혜윤	2011
인간실격 정의와 미소	디자인 오사무	박현석	2011

읽어두기 : 출간시기 : 『정의란 무엇인가?』가 출판된 2011년 5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장르 : 아동용도서, 만화 등은 배제

동음이의형 서명 : 정의(definition) 관련 도서 배제

### 2.3 거대담론의 생성 이유

2010년 5월에 해당도서가 출간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좀처럼 식을 기색이 없는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열풍과 신드롬, 그리고 ‘정의’를 포괄하는 다양하고 거대한 담론이 연일 재생산되는 상황에서 과연 이는 단순히 목표문화권 독자들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결과인가 아니면 어떤 요인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비자발적인 결과인가 판단하는 담론의 생성이유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 2.3.1. 저자의 흡인력

저자 마이클 샌델의 이력에 따라다니는 ‘27세에 최연소 하버드대 교수 임용’, ‘29세에 자유주의 이론의 대가인 존 롤스의 정의론을 비판한 《자유주의와 정의의 한계》(1982)를 발표하면서 세계적 명성을 얻었다’, ‘1980년부터 30년간 정치철학 강의’, ‘2008년 미국정치학회가 선정한 최고의 교수’, ‘정의(justice) 수업은 현재까지 20여 년 동안 하버드대 학생들 사이에서 최고의 명강의로 손꼽힌다’ 등의 많은 수식어는 독자들과 시청자들을 잠재적으로 유인할 수 있는

최고의 흡인력을 지닌 요소들이다. “저자는 담론 분류의 원리로서 그들의 의미 작용들의 통일성과 시원의 원리로서 그들의 정합성의 핵으로 이해된다. (Foucault 1998: 21)는 사실에 비추어보면, 저자 자신은 가장 많은 담론을 양산할 수 있는 중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저자의 배경을 둘러싼 후광효과까지 단단히 한 뭉클 한다면 독자들은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담론을 양산할 가능성이 더욱 농후해질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가령,

사례 7)

“하버드 대학이라는 브랜드 가치와 진지하게 다가오는 강한 인상은 그동안 가벼운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던 사람들에게 색다른 감정으로 다가와 오아시스와 같은 느낌을 주었다. 16)

사례 8)

“어느 날 우연히 EBS 에서 보게 된 하버드 특강으로 주제는 “JUSTICE 였다. 슈트를 깔끔하게 차려입고 부드럽지만 왠지 지성이 넘치는 눈빛으로 강의를 하는 마이클 샌델 교수의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다. 지금은 뒤로 미루어졌지만 나의 계획에는 인문고전을 제대로 섭렵하고자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나 칸트가 거론되는 것만으로도 눈길을 잡았다. 하지만 사실 내용이 쉽지 않았다. 17)

사례 9)

“한편으로는 최고 석학인 하버드대 교수의 사고와 연구들을 이 같은 한편의 책을 통해서 접하고 간접적으로 체험 해보게 된 것이 대단한 것 같기도 합니다. 18)

사례 10)

“마이클 샌델의 강의를 듣는 학생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 샌델 교수의 강의를 들어서가 아니라 ‘정의’에 관한 강의를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태평양 건너에서는 정의와 도덕에 관한 책이 사회적 의제를 설정하는데 나는 참 극명한 대비를 보여주는 세상에서 살고 있구나. 19)

16) 마이리뷰 알라딘서재 : 보물창고님의 서재 2011-08-06

<http://blog.aladin.co.kr/781243175/4980643>

17) <http://blog.yes24.com/document/4675262>

18) 위의 블로그.

저자의 후광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표현으로는 ‘하버드 대학의 브랜드 가치’나 저자의 ‘지성미 넘치는 눈빛,’ ‘인상적인 모습,’ 그리고 ‘샌델교수의 강의를 듣는 학생에 대한 부러움’ 등이 포함된다.

### 2.3.2 저자의 적극적인 행보

마이클 샌델은 하버드대학교 현직 교수로 활동하면서 관련 주제에 대한 강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세계 독자들에게 제공하는 동시에 목표문화권의 사회 문제에도 깊은 관심을 표명하는 식으로 담론의 생산에 직접 참여하여 2차 생산자들의 담론 형성을 주도하는 측면이 있다. 가령, 샌델은 2010년과 2011년에 두 차례 우리나라를 방문하였다. 첫 번째 방문은 아산사회복지재단의 초청으로 경희대학교에서 4000명의 독자와 대화하는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하였다. 그는 이 자리에서 “‘정의’ 관련 하버드 대학교 강의를 온라인 및 텔레비전에 무료로 공개하여 다른 나라 대학생과 ‘글로벌 클래스룸을 만들고 싶다’며 “향후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수업을 듣고 책을 읽은 후 공유하고 싶은 내용을 토론할 수 있게 할 것 이라고 말했다. 또 “일반적인 교육이 아니라 기술을 통해 전세계 최초의 교실을 만들어 시민과 관련된 문제를 논의 할 수 있는 하이테크 글로벌 교실을 만들면 좋겠다 라며 “궁극적인 목표는 전 세계적인 대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20)라고 밝혔다. 그리고 매경 세계지식포럼 강연 차 두 번째로 한국을 찾은 저자는 “한국 무상급식 논쟁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면서 “정의와 공정함에 대한 가치 충돌이 실생활에 구현된 정말 신기한 예 라고 큰 관심을 표명 하면서 “토론의 진행 제의가 오면 응하겠다 21)고 적극성을 보였다. 저자의 이

19) 공유와 소통의 산들바람 : <http://befreepark.tistory.com/1245>

20) 경제투데이 이광진 기자 2010-08-20일 「[영상]마이클 샌델교수, “경희대서 4000여명과 대화 방식으로 강의 진행」.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57&fid=587&articleid=20100820001304308a3>

21) 오마이뉴스 2011-10-12 김시연기자 「『정의란 무엇인가』를 쓴 마이클 샌델은 한국의 무상급식 논쟁을 어떻게 바라볼까?」.

<http://media.daum.net/cplist/view.html?cateid=100000&cpid=4&newsid=20111012153928410&p=ohmynews>

리한 행보는 사실 목표문화권 독자들의 호응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은 자신이 집필한 다른 도서의 후속 출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호응하여 다음의 사례를 포함하여 각종 매체들은 앞 다투어 신간의 발간 소식을 전하기에 바쁘다. 이 또한 담론의 생산에 저자 자신은 물론 목표문화권의 언론매체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이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독자들 역시 연일 바쁘게 신간발간 소식을 바쁘게 퍼나르는 행위를 통하여 더욱 기하급수적으로 담론이 양산되는 결과를 낳는다.

사례 11)

“[신간] 『왜 도덕인가?』 마이클 샌델 지음/안진환, 이수경 옮김/ 한국경제신문/ 1만 6000원: 도덕이 실종된 사회에 대한 물음: 『정의란 무엇인가』로 올해 한국 사회에 ‘정의’라는 주제에 대해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킨 마이클 샌델 교수가 이번에는 좀 더 근본적인 가치인 도덕의 필요성을 일깨운다. 22)

### 2.3.3 문답식 강의 스타일

『정의란 무엇인가?』는 종이 도서의 형태에 머무르지 않고 특강 프로그램의 방영과 더불어 유튜브나 동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생들과 교감하는 문답형 강의 스타일에 독자들은 더욱 열광하는 듯하다. 2011년 EBS가 신년기획으로 1월 한 달 동안 총12강으로 이루어진 ‘정의’ 열풍의 진원지인 하버드대학 ‘정의’ 특강을 연속 방송하였다. 지면을 통하여 접근하지 못했던 많은 독자들 중에는 방송을 접한 후 반응은 매우 남달랐다. 문답식 강의는 형식에 국한되지 않고 독자와 시청자들로 하여금 내용을 가까이 수용할 수 있는 일체감을 제공(사례 13)하거나 사회 현실을 진단하는 계기를 마련(사례 15)하였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우선 ‘정의’라는 주제가 주는 중량감과 강의 스타일에서 오는 신선한 충격을 토로하는 유형들을 찾아볼 수 있다.

22) 大紀元: <http://www.epochtimes.co.kr/news/view.html?section=182&category=186&no=109840>

## 사례 12)

“사회적 정의에 관해 여러 철학사상의 입장에서 고찰해보고 토론하는 형식입니다. 실례를 들어가며 강의와 토론이 진행되는데, 굉장히 알기 쉬운 예시이면서 그 안에서 다루는 내용들은 굉장히 어렵군요. 하지만 오늘 들은 내용은 결국 사회적 가치의 재분배에 대한 얘기가 되었는데, 학생들의 의견들도 굉장히 신선하고 공감이 갑니다. 23)

## 사례 13)

“그동안 가벼운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던 사람들에게 색다른 감정으로 다가와 오아시스와 같은 느낌을 주었고 그의 강의의 특징인 대화형 강의는 신선함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그런 대화형 강의는 한편의 연극을 보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게 하는데 일종의 지적인 연극 관람 체험과 같은 것입니다. 24)

## 사례 14)

“사례를 통해 도덕적 딜레마가 매우 인상적으로 남게 하고 잘 알지 못하고 어렵게 생각하는 정치 철학이라는 생소한 분야를 매력적으로 표현했으며 현재의 세계 정치 경제의 과제와 일치 한다는 점과 선이 있는 정의는 덕을 중시하는 동아시아 문화와 잘 어울리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마이클 샌델의 강의에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 될 수 있었다고 작가는 생각했습니다. 25)

## 사례 15)

“나는 무상급식을 둘러싼 복지논쟁을 화두로 삼아 이 책을 읽어내려 갔다. 나는 무상급식에 찬성한다. ‘복지포퓰리즘’과 ‘재정부족’이라는 이유로 연기하고 방치하는 것은 아무런 해결책도 강구하지 않는 ‘후진’ 인식을 보여준다. 26)

일방적인 강의가 아닌 교수와 학생이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문답식 강

23) ginis.net : <http://ginis.net/71>

24) 마이리뷰 알라딘서재 : 보물창고님의 서재 2011-08-06.

<http://blog.aladin.co.kr/781243175/4980643>

25) 위의 블로그.

26) 블로그: 자하 - 보편적 복지논쟁을 화두로 이 책을 읽는다.

<http://blog.yes24.com/document/4855254>

의에 대한 위의 사례들을 보면 논의주체의 생경함과 난이도에 비하여 주변의 실례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다가가는 교수법에 매우 공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공감대의 확산 역시 담론의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 2.3.4 헤게모니와 결합형

목표문화권에는 담론의 양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마이클 샌델 교수의 후광효과를 향유하려는 인사들이 많이 출현한다. 그들은 주로 정치인이나 사회단체 혹은 연구기관 등으로 이들은 주로 목표문화권에서 헤게모니를 행사하는 개인이나 집단에 속한다. 사회단체와 연구기관과 관련해서는 앞서 저자를 초청하여 대형 강당에서 수많은 청중들을 만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 바 있으며, 때를 놓치지 않은 많은 정치인들이 저자를 만나고자 줄을 서는 행태가 벌어진다. 혹은 저자와 조금이라도 인연이 있음을 과시하고자 하는 경향도 보인다.

사례 16)

“마침 무상 급식 문제가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샌델 교수는 이날 저녁 박원순 서울시장 야권단일 무소속 후보를 만나 대담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끈다. 27)

사례 17)

“한나라당 정몽준 전 대표는 오는 17일부터 서울 등 전국 대도시를 돌며 자서전 출간 기념 사인회 겸 ‘저자와의 대화’ 행사를 갖는다. 정 전 대표는 프랑스 출신 세계적 석학인 기 소르망, 마이클 샌델 미국 하버드대 교수, 한국 골프의 간판인 최경주 선수 등 국내외 명사와의 대담집을 펴낼 계획이고,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담은 저서 발간도 준비 중이다. 28)

27) <http://media.daum.net/cplist/view.html?cateid=100000&cpid=4&newsid=20111012153928410&p=ohmynews>

28) 조선닷컴. 2011-09-13 배성규기자 「정몽준, ‘책 콘서트’로 본격 대선 행보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9/13/2011091300526.htm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9/13/2011091300526.html)

위의 사례들은 우리사회의 부끄러운 단면이기도 하다. 지도층 인사들의 이러한 행보는 거대 담론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오히려 이미 형성된 거대 담론에 무임승차하려는 행동으로 볼 수도 있다. 따라서 해당 담론의 저자의 위상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자연스럽게 조성되는 셈이다.

### 2.3.5 무비판적인 수용

지금까지 논의한 담론의 양상과 담론의 생성 원인을 살펴보면 대체로 저자와 작품, 강의스타일, 사회 현실에 직접 관여하는 그의 행보 등에 관하여 비판적인 목소리를 높이지 않은 채 목표문화권의 독자들은 무척 관대한 태도를 일관한다. 이러한 관대함과 무비판적인 태도는 아무런 여과장치도 거치지 않고 목표문화권 독자들의 사유의 영역에 깊숙이 자리하였다. 인터넷을 검색하면 물리적 한계와 영역의 한계를 훌쩍 뛰어 넘어 온갖 유용한 자료를 마음대로 접할 수 있는 초국가적(transnational) 시대에서 학문의 장벽을 허물고 소통과 통섭을 지향하고 다학제적인 연구풍토가 득세하기 시작한 지 꽤 오래 되었지만 우리나라 사회에서 거대한 ‘정의 담론’을 형성하여 화두가 된 사회 현상에 대하여 무비판적인 시각으로 무조건적인 수용을 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반성할 필요가 있다.

그나마 반가운 소식은 마이클 샌델과 『정의란 무엇인가?』를 읽으면서 느낀 의문과 미심쩍음을 스스로 되묻기 위해 『무엇이 정의인가: 한국사회, 『정의란 무엇인가』에 답하다』가 2011년 1월에 출간되었다. 이 책은 기획의도를 통하여 독자의 인식 전환을 꾀하고 있다. “정의에 열광하는 한국사회의 현상, 샌델이 말하는 정의에 대한 본격적인 이해와 비판, 그 자체로는 전적으로 긍정적인 단어인 정의가 드리우는 그림자들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샌델의 정의론에 대한 찬성과 반대, 열광과 냉소를 넘어 ‘정의’가 한국사회의 진정한 화두로서 기능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택광 외 2011: 7-12). 이러한 시도는 저자들의 비평적인 시각을 통하여 다분히 국수적인 시각을 초월하여 향후 유사한 상황이 전개되었을 때 보다 다각적인 방식으로 담론을 형성하여 생산적이며 성숙된 독서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데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 3. 마무리 및 제언

지금까지 2010년 『정의란 무엇인가?』의 출간과 동시에 지금까지도 기세가 꺾이지 않은 채 한국사회에 들불처럼 번진 ‘정의 담론’의 유형과 형성 원인 등을 살펴보았다. 서론에서 제기했던 ‘한국사회 내부에서 동기화된 자발적인 담론인가? 아니면 텍스트 자체와 관련된 감춰진 권력의 속성에서 비롯된 비자발적인 담론인가?’와 관련하여 해당 텍스트는 이 두 가지 요소를 모두 포괄하는 담론으로 볼 수 있다. 전자와 관련하여 ‘정의 담론’을 형성하는 주체는 저자와 출판사 그리고 목표문화권의 역자와 출판사들로 일종의 담론의 시원(始原)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가령, 목표문화권 독자들은 ‘정의’ 담론의 생성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텍스트적 실천(지식 갈증 해소형), 담론적 실천(자의식 환기형, 사회변화 시도형), 그리고 사회적 실천(지식 확장형) 등의 양상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거대담론의 생성원인으로는 주로 후광효과를 지닌 ‘저자의 흡인력’, ‘저자의 적극적인 행보’, ‘문답식 강의 스타일’, ‘헤게모니와 결합’, 그리고 ‘무비판적인 수용’ 등이 나타났다.

후자와 관련하여 이 작품은 특이하게도 번역서이지만 목표문화권에서 원전처럼 수용되어 거대한 담론을 양산하는 특징을 보였다. 이는 양극화의 심화로 정의 사회에 대한 갈망이 커진 독자의 욕구가 반영된 출판전략이 주효할 수 있었으며 담론이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는 토양이 이미 목표문화권에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독자들이 ‘브리콜라주’가 가능한 환경적인 요인 역시 비자발적인 담론의 형성에 기여한 측면이 지대하다. 가령, 지면에만 국한되지 않고 방송매체나 동영상 등을 통하여 하버드 강의 내용을 직접 접할 수 있는데다 저자의 지명도나 명성, 그리고 지식의 화석화(化石化)에 머물지 않고 이론과 현실문제 그리고 사례 등을 적극적으로 접목하여 교수와 학생들이 문답식으로 진행하는 강의 방식 등은 독자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공감을 단시간에 이끌어 냈기 때문이다. 인터넷을 비롯한 다중매체를 무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에서 과거처럼 원전의 번역과정을 거쳐 목표문화권에 소개되는 일련의 과정이 보다 단축되고 원전과 번역본을 수용하는 독자의 태도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특히 주요 언어로 쓰여진 원본은 번역가의 도움 없이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독자들이 양적으로도 많을 뿐 아니라 각종 번역도구와

부지런한 네티즌 독자들의 기여로 원전 혹은 번역된 자막서비스를 지체없이 제공하기 때문에 일반독자들은 이러한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정의란 무엇인가?』를 둘러싸고 양산되는 거대한 담론을 번역의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가? 본고에서는 담론의 양상과 담론의 생성 이유에 대한 일천한 분석에 그쳤지만, 아무런 여과과정을 거치지 않고 수입되는 이론이나 지식이 목표문화 사회에서 무차별적으로 수용하고 담론을 양산하여 시대의 화두로 등장하여 사유의 공간이 잠식되어 가는 과정에서 번역학자들이 담당해야 할 역할에 관하여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자각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그들은 텍스트 내부에 갇힌 채로 텍스트 분석과 번역의 품질 평가에 치중한 나머지 텍스트 외부에서 진행되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은 감지하지도 못한 채 방관자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은 아닌지 침잠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탈민족, 탈경계의 시대를 빌미로 여과되지 않은 담론이 우리사회에 무차별적으로 수용되는 양상을 주체적이며 분석적인 시각에서 엄중하게 검토하여 일반독자들의 독서 문화를 선도해야 하는 것이 번역학자들의 1차적인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번역학의 관심대상과 연구방식을 보다 확대하여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번역의 역할과 담론이 생성되는 환경과 역학구조 등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쏟아야 하는 막중한 소임을 상기하고 이에 대한 인식을 환기하는 것으로 본고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 강내희 (1990) 「담론이론의 안팎: 몇 가지 담론이론에 관한 소고」, 『인문학연구』 17: 115-132.
- 김영기 (2011) 「마이클 샌델의 정의관 비판」, 『동서사상』 10: 1-26.
- 노먼 페어클로프 저, 이원표 역 (2004) 『대중매체 담화분석』, 서울: 한국문화사.
- 류현주 (2006) 「디지털 서사 담론 번역의 용어 문제」, 『번역학연구』 7(2): 69-86.
- 마이클 샌델 저, 이창신 역 (2010) 『정의란 무엇인가?』(Justice: What's the Right Thing to Do?) 파주: 김영사.

- 마이클 샌델 저, 이목 역 (2010) 『정의란 무엇인가?』(Justice with Michael Sandel) 과주: 김영사.
- 미셸 푸코 (1998) 이정우 역. 『담론의 질서』, 서강대학교 출판부.
- 이상환 (2010)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서평 - 어떤 정의인가?: 불의의 세상을 살아가는 법」, 『동서사상』 9: 323-334.
- 이택광 외 (2011) 『무엇이 정의인가?: 한국사회, 정의란 무엇인가에 답하다』, 서울: 마티출판사.
- 이향 (2010) 「번역품질평가의 현황과 과제」, 『번역학연구』 11(2): 107-125.
- 이향 (2011) 「번역학과 메타담론」, 『번역학연구』 12(1): 191-210.
- 전현주 (2008) 『번역비평의 패러다임』, 과주: 한국학술정보(주).
- 전현주 (2004) 「다중체계 이론과 한국 현대 번역 문학사」, 『번역학연구』 5(1): 167-182.
- Bassnett, Susan & Trivedi, Harish (1999) *Postcolonial Translation: Theory and Practice*, Routledge.
- Derrida, Jacques (1991) 'Des Trouns de Babel', *A Derrida Reader*, New York: Columbia UP.
- Fairclough, Noram (1995) *Media Discourse*, London: Edward Arnold.
- Fairclough, Norman (2003) *Analysing Discourse: Textual Analysis for Social Change*, London: Routledge.
- Steiner, George (1997) *After Babel: Aspects of Language and Translation*, Oxford: Oxford UP.

참고사이트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4/19/2011041900043.htm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4/19/2011041900043.html)
- <http://blog.daum.net/windyzz/6666605>
- <http://dreamtheater.tistory.com/996>
- <http://www.epochtimes.co.kr/news/view.html?section=182&category=186&no=109840>
- <http://blog.daum.net/tobfreeman/7163974>
- <http://blog.yes24.com/document/4152983>.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0102161241>

<http://media.daum.net/cplist/view.html?cateid=100000&cpid=4&newsid=20111012153928410&p=ohmynews>

[http://book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9/20/2011092000611.html](http://book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9/20/2011092000611.html)

<http://blog.yes24.com/document/4855254>

[http://www.nanumnews.com/sub\\_read.html?uid=24570](http://www.nanumnews.com/sub_read.html?uid=24570)

[Abstract]

**Translation and Discourse:  
Focusing on the Socio-cultural Role of Translation**

Chun, Hyunju  
(Hanbuk University)

This paper attempts to interpret and analyse the unprecedentedly heated discourse of 'justice' and its author of *Justice with Michael Sandel* in Korea around 2010 and 2011, and to trace back what factors have caused the fever in the perspective of the socio-cultural role of translation. The distinctive feature of this phenomenon is that readers in the target culture consume the translated text not as the translated one but as the source one. Moreover, they have dedicated themselves to production and reproduction of the 'justice' discourse voluntarily in the forms of book reviews, comments, and just information upload using the SNS(social network service) like internet café, blog, twitter, podcast, YouTube and others. Their correspondent responses shall be categorized such as the type of 'Eliminating Knowledge-Thirst', 'Reconstruction of Self-consciousness', 'Attempting at Social-Change', 'Expansion of Knowledge'. And the reasons of discourse generation are 'Author's Charisma', 'Author's Active Participation in Social Issues', 'Catechetical Lecture Style', 'Combination with Hegemony' and 'Uncritical Acceptance'.

Through the analysis of 'justice' discourse, this paper suggests that scholars of translation studies should expand the horizons of their study field into extra-text circumstances which reflect the socio-cultural role of translation, their hegemony and consumption patterns around the introduction and publication of translated texts in the target culture, and should lead the culture of reading to the more critical and conscious acceptance of external cultural knowledge and information.

▶ Key Words: justice, Michael Sandel, translation discourse, socio-cultural role of translation, types of readers, critical discourse analysis(CDA)

전현주

한북대학교 영어학과 전임강사

transju@hanbuk.ac.kr

관심분야: 번역과 문화, 번역학 술어, 코퍼스 번역학, 번역평가 및 비평, 번역교육, 포스트식민주의 번역 등

논문투고일: 2012년 1월 26일

심사완료일: 2012년 3월 12일

게재확정일: 2012년 3월 16일